

인생 후반기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MAXIMIZING THE LEVERAGE OF OUR LATTER YEARS

By Jim Langley

나는 몇 년 전부터 “4 쿼터 전략”이라는 에세이 시리즈를 쓰고 있다. 이 글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거친 직업 경력의 단계들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 4/4 에 해당하는 쿼터가 가장 빛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80 세 이상 사는 것은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 20 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 그 단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모두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Years ago, I began writing a series of essays I called “Fourth Quarter Strategies.” The premise is that while every stage of our professional life is important, our final quarter should be our best. If we remain healthy, living to age 80 and beyond is a reasonable goal. That would mean the last 20-plus years of our lives could be the most productive of all – because of both expertise and experience.

얼마 전 CBMC 사무국장인 앨런 스미스는 기독교 고위 비즈니스 리더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은퇴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주님에게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 업계에서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젊은 청년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다.

Some time ago Alan Smith, a staff director for CBMC met with a small group of older Christian business leaders (some of them were retired). He encouraged them to recognize the incredible value they still had for the Lord as well as for younger professionals they interact with in the local marketplace.

스미스는 여섯 개의 “생각을 위한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여섯 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했는데, 이 여섯 개의 성경 구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Smith offered six Bible verses as “food for thought” that share one thing in common: All are found in the first chapter and third verse in their respective books. We believe this is not coincidental, but by design,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lder followers of Christ have for God’s purposes. Here are those verses: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제한은 없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3)

There is no time limit to being fruitful.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Psalm 1:3).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1:3)

Wisdom is to be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Tell it to your children, and let your children tell it to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o the next generation” (Joel 1:3).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줌으로써 섬길 수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3)

We can serve as examples for others to follow.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1 Thessalonians 1:3).*

영적 성장은 끝이 없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후서 1:3)

Spiritual growth never ends.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all of you have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2 Thessalonians 1:3).*

기도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3)

Our prayers make an eternal impact. *“I thank God, whom I serve, as my forefathers did, with a clear conscience, as night and day I constantly remember you in my prayers” (2 Timothy 1:3).*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은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3)

Wisdom, understanding and faith are to be shared.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may also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1 John 1:3).*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는 스미스의 관점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제자 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냥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 관망만 하면서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As a fellow follower of Christ, I agree with Smith's perspective on the value of our latter years. Many of us are less encumbered with work demands and more available to serve, teach, mentor and disciple others. God does not want us to sit back and put ourselves on a shelf for our remaining years on earth.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사도바울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나는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힘차게 달리는 장거리 주자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In his letter to the Church in Philippi, the Apostle Paul succinctly concluded,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ippians 1:21).* His life gives us a beautiful example of how to live our lives to the very end for the Lord Jesus. I encourage you to join me with the attitude of a distance runner determined to reach the finish line strong, focusing on the prize that lies ahead!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당신은 이번 주 월요만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감이 되나요? 만약 당신이 아직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젊은 사업가나 직장인이라면 당신은 선배 동료들의 지혜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How do you relate to the content of this Monday Manna? If you are a younger business or professional person, still building your career, have you taken advantage of the wisdom and experience of older colleagues?

If you are in your latter years, have you recognized the value you can continue to bring to the workplace – and to those you encounter each day?

2. 직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적극 교류하면서 상호 유익을 주고받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are obstacles that can prevent or inhibit older and younger people in the marketplace from successfully interacting and benefiting mutually from one another?

3. 만약 당신이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인데, 연장자와 만나서 그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들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을 전수받고 싶나요?

If you are a younger person in the marketplace, and an older person were available to meet with you to offer his or her wisdom, experience and knowledge, what things would you like to receive?

4. 만약 당신이 오랜 직장 경험이 있거나 은퇴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If you are one of the people referred to, a veteran of the workforce or retired, what things do you think you have to offer to younger people? How would you go about trying to find someone you could invest in to share experience, insights and wisdom you have gained through many years in the marketplace?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For more about what the Bible says about this topic,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시편 92:12-14; 빌립보서 1:21-26; 디모데후서 4:6-8; 히브리서 12:1-2

Psalm 92:12-14; Philippians 1:21-26; 2 Timothy 4:6-8; Hebrews 12:1-2

- **(시편 92:12-14)**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 **(빌립보서 1:21-26)**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람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4:6-8)**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히브리서 12:1-2)**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직장 경력을 막 시작했건, 직장 경력 전성기이건, 은퇴를 앞두고 있건, 이미 은퇴했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있든지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직장에서도 세대 간 협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Regardless of where we are in our working careers – just getting started, in the midst of our prime years, or moving toward retirement (or already there) – we have much to offer that can benefit one another. This week, try to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how you might benefit from the synergy of older and younger people collaborating where you work.

당신이 직장에서도 경력에 차이가 나는 선/후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좋은 관계 맺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은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If you recognize the benefits of spending time with another person in a different stage of his or her career, consider approaching someone to begin such a relationship. Pray that God would lead you to the right person.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자: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